

박항서 감독, 태국 프로축구 2부 팀 지휘봉 잡고 현장 복귀

등록 2026.05.25 18:39:58



[서울=뉴시스]박항서 감독, 태국 프로축구 2부리그 팀 지휘봉. (사진=디제이매니지먼트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박항서(68)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3년 6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박항서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디제이매니지먼트는 25일 "베트남 축구의 신화를 쓴 박항서 감독이 태국 무대에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태국 2부리그 깐짜나부리 파워 FC와 2년 계약을 맺고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인 박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단장을 맡고 있어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이후 깐짜나부리 파워 FC에 합류할 예정이다.

수석코치로는 이정수 코치가 함께한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 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이

상 2018년), 2018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 진출, 2029 아시안컵 8강 진출, 동남아시아(SEA) 게임 2회 연속 금메달, 베트남 역대 최초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진출 등의 성과를 내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2023년 1월 베트남 대표팀을 떠난 박 감독은 이후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베트남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을 썼다.

동시에 지난해 5월 북중미 월드컵 지원단 단장으로 맡아 오는 29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흥명보호 지원에 나선다.

박 감독은 월드컵 지원단 단장 업무를 마치고 7월 태국으로 이동해 깐짜나부리 파워FC 사령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깐짜나부리 파워 FC는 지난 시즌 태국 1부리그 최하위로 2026~2027시즌 2부리그로 강등됐다.

박 감독은 디제이매니지먼트르 통해 "그동안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깐짜나부리 파워 FC가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축구에 대한 진정성이 도전 정신을 깨웠다.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